

영광군, 청년혁신창업 공간 조성 눈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청년예술인 작업 공간

'빠꼼살이 공작소' 개소...주변 상권 활기 기대

영광군과 '청소년자립터 오늘'은 지난 6월 28일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혁신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빠꼼살이 공작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빠꼼살이 공작소'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해 책상, 신반 등 집기를 직접 제작하고 내부벽화 등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빈 점포가 목공예, 금속공예 등 교육 및 창작활동 공간이자 커뮤니티 스페이스로 탈바꿈된 것이

다.

7월부터 목재·금속·커피 가공, 업사이클링 등 7개 기초교육과정이 진행되고 교육 수료 후 창업 팀을 구성하여 제품 제조과정, 신진지 견학 과정, 판매 과정 등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자립터 오늘'이 추진하는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니트족,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빠꼼살이 공작소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홍보, 청년창업 링크스, 청년창업 사관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을 구시가지 전 한길서점 자리인 이 공간을 비롯해 주변거리가 과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현재는 빈 점포가 늘어 공실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 공간인 '빠꼼살이 공작소'가 들어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군, '목조각 작품전' 개최

장흥군은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2019 기획최초대전 행사로 '최희원 작가 작품 전시전'을 연다고 밝혔다.

최희원 작가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하고 조각분야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로, 자연의 웅장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업을 해왔다.

나무를 치밀하게 도려내기보다는 원래 형상에 맞춰 질감을 담백하게 드러낸다.

작품 '산지린구-적아'는 나무조각 형태를 살려 계곡과 비탈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산지린구-난산'에서는 기암괴석을 떠올리게 하는 현란한 무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제 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전시회를 즐기고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축제운영부스(1-DAY CLASS 목공 체험)에서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화순군, 여름철 농작물 관리 총력

화순군은 여름철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현장 지도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작물의 생육 중·후반기인 고온다습한 여름철 농작물 관리가 중요하다. 철저한 병해충 방제,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여름철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 3000부를 제작해 농업인상당소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다.

또, 폐지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대신해 농작물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위한 현장 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군은 철저한 농작물 관리를 당부하며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를 배포해 주요 농작물의 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벼는 중간물떼기(출수 전 30일까지 완숙)를 통해 눈에 실금이 가도록 말리면 벼 쓰러짐 방지, 햇살에 익혀, 유훈 물 제거로 벼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 배부, 현장 지도를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물 관리 기술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폭염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토양 적습을 유지하고 고온성 해충 방제 등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황룡강 생태보호

'낙시 금지 지역' 지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장성군이 황룡강 일부 구간을 낙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장성군은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보호를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낙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낙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딱박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낙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지역에서 낙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낙시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지역주민과 낙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낙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농식품부 최종 승인

함평군은 당 기관이 수립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작물의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식량생산 다각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계획, 적정투자계획 등이다.

이 계획을 최종 승인 받은 지자체는 국비지원사업 신청자격에 부여받게 된다.

앞서 군은 함평군 통합 RPC,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 관련 기관·단체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3월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논 타작물 재배 신장면적 계획대비 50% 이상'을 조건으로 승인 받았다.

이후 군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밀, 콩 등 벼 이외의 식량작물 재배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식량산업분야 전반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572ha)의 83% 달하는 478ha를 올해 신청 받으면서 이번에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5년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식량작물 공동(돌봄)경영체육성(사업다각화) 사업' 등 각종 국비연계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얻게 됐다.

백형규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구조 상 이번 승인은 지역의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어렵게 승인된 만큼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군-금연지원센터, '주민 건강위한 업무협약' 체결



담양군은 최근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전남금연지원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과 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일방·전문형 금연캠프, 지역사회 금연사업 연계체계 구축, 금연 캠페인 운영 등 흡연예방 문화 정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금연지원센터에서는 20갑년 이상 장기흡연자 및 질병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형 금연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흡연 1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수치로, 하루 한 갑 씩 20년을 피우면 20갑년이 된다.

전문형 금연캠프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4~5일간 입원에 무료건강검진, 금연

약 처방, 심리상담, 교육 등을 통해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담양군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2018년도 우리 군 금연클리닉에서의 금연성공률은 38.7%이고, 2015년부터 2018까지 전남금연지원센터 전문형 금연캠프를 통한 금연성공률은 68%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금연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나주시는 최근 목사고을시장 일원에서 나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열정거북 협동조합' 배우들의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피켓 및 전단지 배부를 통해 관내 교통사고 건수 절반 줄이기를 위한 △어린이 보행안전 및 규칙, △청소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중·장년 차량 속도 줄이기, △보행자 우선 배려, △음주운전 근절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위광환 나주시장은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다면 교통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겠다"고 말했다.

